삼성광주전자

백색가전 세계 1위 이끈다

내달 정밀금형개발센터 가동…냉장고·세탁기 신제품 잇따라 출시

삼성광주전자가 삼성 생활가전 세계 1위 도약의 '마더(mother·어머니) 사업장'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됐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이자 삼성광주전자 사장인 홍창완 부사장은 16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냉장고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삼성 생활가전 1위 도약 목표를 밝혔다.

오는 2013년을 '글로벌 생활가전 1위 도약' 원년으로 선포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1등 업체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기저에는 생활가전의 신기술·신제품 생산기지인 삼성광주전자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삼성광주전자 내 삼성 정밀금형개발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삼성 생활가전은 광주에서 신기술을 접목한 디자인 혁명을 이루게 된다.

삼성광주전자는 해외수출이 60%, 내수가 40% 규모로 냉장고를 비롯해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압축기(컴프레서) 등 삼성의 생활가전의 메카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프리미엄 모델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등 신기술·신제품 개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홍 부사장은 "내년까지 세계 냉장고 시장점유율 1위인 월풀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냉장고 시장 1위 업체로 도약하겠다"며 "냉장고를 필두로 해 생활가전 부문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사장은 냉장고에 이어 세탁기는 2012년, 청소기는 2013년에 각각 세계 1위에 올라 2013년에는 세계 생활가전 시장에서 명실상부한 1등 업체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 냉장고 시장은 월풀이 미국 시장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14% 안팎의 점유율로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11% 내외의 점유율로 월풀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유럽시장 교두보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폴란드 가전업체인 아미카(Amica)를 인수, 유럽지역에 첫 백색가전 생산기지를 구축했다. 또 올해 들어 국내는 물론 유럽과 미국시장에서 인기를 끌만한 전략 신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0'에서는 처음으로 1500㎡ 규모의 생활가전 단독 전시장을 마련, 세계 최대 용량의 양문형 냉장고 신제품 등 140여 종의 프리미엄 가전을 선보이는 등 글로벌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생활가전업계 관계자는 "삼성 생활가전의 글로벌 공략에 삼성광주전자가 직접 동원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해외 공장의 기술을 지원하고 지휘하는 사령탑으로서 위상과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삼성' 글로벌 100대 브랜드 중 19위

삼성은 세계적 권위의 브랜드가치 조사기관인 인터브랜드사(社)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19위를 차지해 2년 연속 톱20 브랜드에 포함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따라 글로벌 100대 기업들의 브랜드가치가 대부분 상승, 평균 8.1%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IT·CE 분야 기업의 평균 증가율은 4.3% 증가에 그쳤다.

반면 삼성의 브랜드가치는 전년 대비 11.3%나 증가한 195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여 지난해 처음으로 글로벌 톱20에 포함된 이래 지속적으로 브랜드가치를 높여나가는 성과를 거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과 현대차(65위) 등 2개 기업만이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포함됐으며 1위는 코카콜라가 차지했다. /연합뉴스

호남권 KB미소금융재단 개소 16일 열린 KB미소금융재단 호남지사 개소식에서 국민은행 이경학 여신심사그룹 부행장, 김상호 광주 동구 부구청장 등이 개소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소금융 호남지사는 전국 6번째 지사로, 광주시 동구 금남로 국민은행 광주지점 금남로 출장소 건물 2층에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8월 무역수지 5600만달러 적자

광주·전남지역의 8월 무역수지가 56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6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10년 8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8월 수출은 전달보다 12.0% 감소한 32억8200만달러, 수입은 4.0% 감소한 33억3800만달러로 무역수지 56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무역수지 적자는 선박(-90.2%), 승용차(-24.7%), 전기전자제품(-15.6%) 등 주력 제품의 수출이 많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는 기계류와 정밀기기(2.1%)의 소폭 증가를 제외하고 수송장비(-24.4%), 반도체(-20.8%), 가죽·고무 및 신발류(-17.7%), 가전제품(-7.8%)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다.

전남의 8월 수출은 전달보다 9.9% 감소한 23억8400만달러, 수입은 3.9% 증가한 29억1600만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은 석유제품(9.7%), 화공품(5.2%) 등이 증가했으나 선박(-90.2%), 철강제품(-0.2%) 등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은 기계류와 정밀기기(-14.7%), 화공품(-9.5%), 철강재(-9.0%) 등이 감소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신불자 200만명 이하로 '뚝'

2002년 이래 최저치 광주·전남도 감소세

한때 370만명에 달하던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작년말에는 20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금융채무 불이행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올 상반기에 1285명으로, 전년 동기(1787명)대비 28% 감소하는 등 꾸준한 내림세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93만4000명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권의 관련 통계를 종합적으로 집계한 2002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6월말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73만6000명으로 작년말보다 19만8000명 줄었다. 최대치였던 2003년과 비교해 6년 반 사이에 200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올 상반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1285명으로, 전년 동기(1787명) 대비 28% 감소했다. 방문 및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채무상담자 수도 18만9287명으로 작년 상반기 보다 45% 가량 줄었다.

이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규 등록자에 비해 탈출 인원이 더 크게 늘어난데 기인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줄어든 데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제 도입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도입된 2002년 이후 이 제도를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에서 벗어난 인원은 지난 7월까지 모두 87만2593명에 달했다. 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활용한 인원은 올해 6월말까지 87만1619명이었다.

지금까지 174만4212명이 자력이 아닌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분에서 벗어난 셈이다.

다만 개인파산을 선택한 사람이 59만1080명으로 전체 탈출자의 33.9%에 달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합뉴스

광주시민 추석 선물 40만1000원 쓰겠다

광주시민들은 올 추석 선물비용으로 가구당 평균 40만1000원을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10명 가운데 5명은 차례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이는 여론조사전문 기관인 공공데이터센터(KPDC)가 지난 13일~14일 광주시민 533명을 대상으로 '추석선물 및 비용'에 대해 전화면접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의 선물비용은 가구당 평균 40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11만원~30만원 범위내에서 선물을 준비하겠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21.7%였다. 100만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대답도 3.7%에 달했다.

48.2%는 선물 구입장소로 대형할인마트를 꼽았고, 백화점·재래시장에서 사겠다는 각각 18.9%, 12.4%였다.

차례를 지내는 것에 대해 52.2%가 시대가 변한만큼 간소화하거나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했다. 여성 60.4%가 차례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 43.3%만 그렇다고 답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물가상승 대응위해 기준금리 정상화 시급"

물가상승이나 더블딥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준금리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출구전략의 배경과 파급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올해 6.1%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경기 회복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도 높아지는 데다, 저금리는 자율적인 시장교정을 저해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나 중국의 경기둔화 등 국외 요인을 무시할 수 없으나 통화정책은 국내 요인을 더 우선시 해야 한다"며 "국내 경제여건이 호조를 보일 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향후 더블딥이 오더라도 정책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상 최저 수준인 2.0%의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때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정한 것이며, 지난 7월 0.25%포인트 인상했더라도 기준금리는 여전히 경제여건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면서 적정 기준금리 수준으로 3.5~3.7%를 제시했다. /연합뉴스

민속놀이 체험하고 차량점검까지…

유통업계 추석 이벤트 풍성

민속놀이 체험 이벤트를 비롯해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 등으로 고객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17일 오후 2시부터 1층 광장에서 '추억의 교실-뽑기 이벤트'전을 열고 당첨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한다.

또 18~20일까지 1층 광장에서 투우게임, 팽이돌리기 등 '추석맞이 민속놀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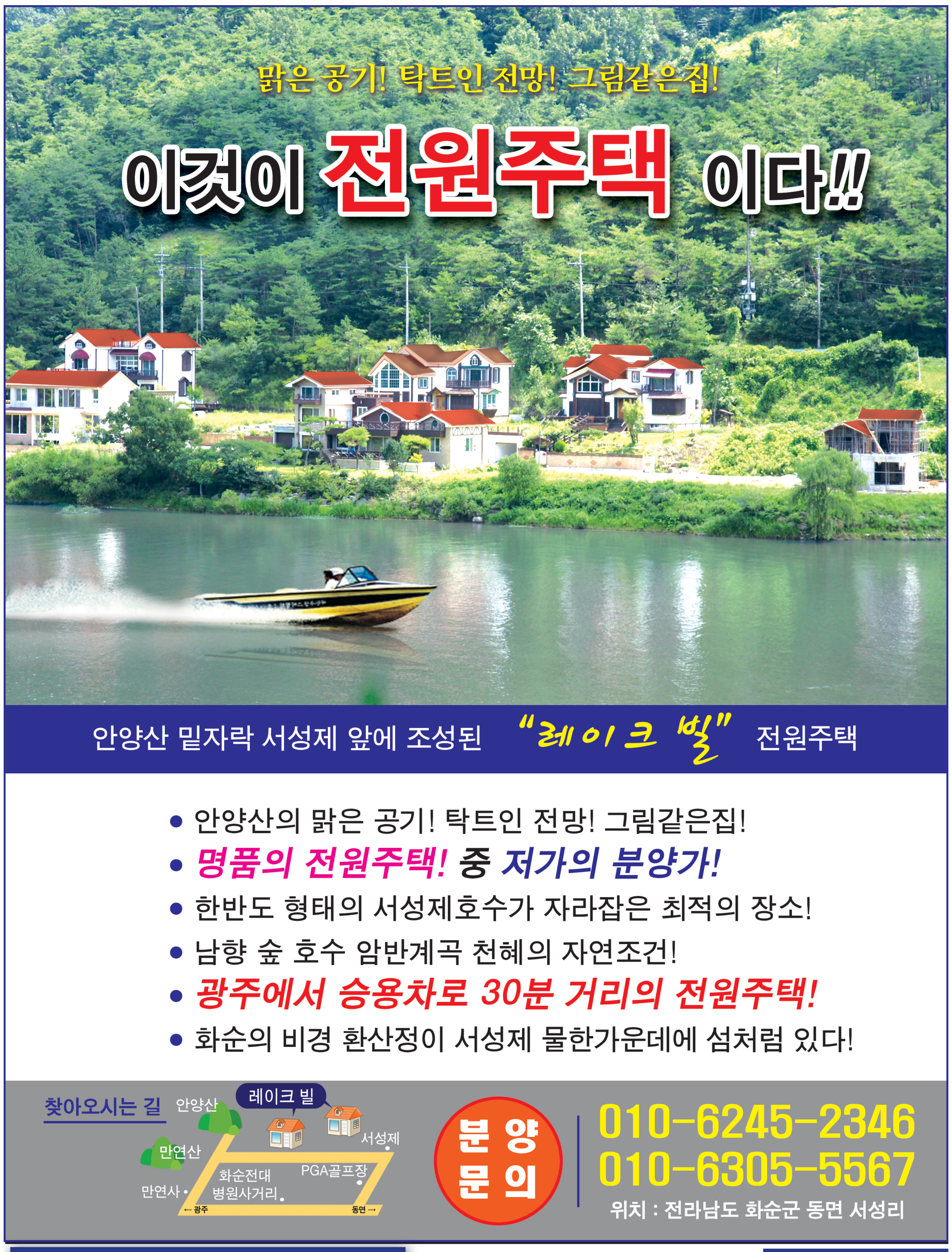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8일 오후 2시부터 1층 정문에서 '추석선물 대잔치-행운의 복불복 경품 대축제'를 열고 백화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증정한다.

또 '즐거운 귀경 특별 이벤트'로 17일까지 백화점 남문주차장에서 타이어 공기압 점검, 각종 오일 보충 등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18일 오후 2시부터 1층 정문행사장에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민속놀이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가위 민속놀이 한마당'전을 연다. 참가자들에게 송편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사은품도 증정한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과일·채소값이 급등해 차례상 비용이 많이 오르자 유통업체들은 차례상에 올릴 완제품 음식을 다양하게 준비해 고객몰이에 나섰다.

신세계 이마트는 햅쌀 송편(100g·1060원)을 비롯해 즉석 모둠전세트(3~4인용·9900원), 국내산 나물 모둠세트(4~5인용·1만5800원) 등을 내놓았다. 고두앞 을목대 석추 이들 점화백 역 /이은미기자 emlee@



삼성전자 특판! SAMSUNG 삼성전자

삼성전자에서는
모텔, 호텔, 법원, 오피스텔, 유치원, 사무실, 게임방, 레저시설, 학원, 종교시설, 관공서, 기타 신규상가, 기업체, 업소, 등 모든 수요처에 대해 대량 수요에서 소량수요까지 특별판매를 점담하는 특판전문 파트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어콘 · PDP · 컴퓨터

삼성에어콘, 벽걸이에어콘,삼성시스템 에어콘, LEDTV, LCDTV, PDPTV, 컴퓨터, 모든제품을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고있습니다.

삼성전자 특판전문점
(주)스타비투비
018-808-1234
018-646-7890
언제든지 연락주세요!!